召 命

— Summon —

安 炳 茂

非宗教化?

最近에 와서 "종교"라는 개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미 自由主義神學時代에 계몽주의의 회오리바람에 몰려서 그리스도교의 내용을 理性이라는 尺度에서 보기 시작하므로써 마침내 성서에서도 이른바 "종교적" 또는 "神秘的" 요소는 모두 본질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이른바 倫理的인 것만에 주목하므로 예수까지도 하나의 재료운 윤리교사로 전락시켰다. 이것에 맞선 이 중에 대표적인 이가 칼 바르트다. 그것은 「宗教」라는 것은 결국 文化의 한 부분으로 人間의 요청과 욕구의 표현으로 보아서 그리스도교의 〈非宗教性〉을 역설했다. 그러므로 그의 神學의 기조는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것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주장은 歷史나 人格을 中心으로 보고 그것의 중추는 理性이라고 보려는 自由主義神學과 정면 대립된 주장이다. 그러나 여기 아이로니가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를 非宗教化한다는 데서는 공통된다는 사실이다.

그후 본훼퍼의 옥중서신으로 다시 이 문제가 再飛火되어 宗教라는 범주는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이 뒤를 이어 世俗化神學 나아가서는 神의 죽음의 神學이라는 기묘한 신학까지 나타났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모르는 동안 그리스도교의 수직적(vertical) 성격은 점차 잃어져 가고 平面的(horisontal)인 면만이 강조되므로 그 거점을 잃어버려가는 경향이 농후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관심 또는 활동의 양상이나 동기도 일반적인 운동전략적인 것 이상의 것이 없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면 성서는 어떤 현실을 보여 주고 있나?

召命의 단계

성서를 보면 무대는 언제나 이 歷史의 한 복판이다. 구약은 구체적으로

심원안병무아키브
www.simone.or.kr

는 이스라엘 民族史가 바로 하나님의 활동의 장이다. 거기 성 속의 구별은 물론 靈肉이라는 구별도 없다. 그렇다고 윤리나 도덕 또는 종교라는 특정한 범주만이 神의 영역이 아니라 戰爭, 승리, 패배의 장도 그의 주관의 주장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일하신다.

구약에서는 어떤 사건에 언제나 中心人物이 있다. 그런데 등용된 자들에게 대체 다음 네 단계의 경험이 있다. 첫째는 血氣的인 義憤에서 헐기했다가 철저한 체념에 빠진다. 둘째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가 神秘한 경험을 한다. 셋째로 그러한 경험 다음에 〈거룩한 것〉 (Das Heilige)을 경험한다. 넷째, 그러한 경지에서 새로운 명령을 받는다. 그 명령의 내용은 歷史上의 구체적 사건과 직결된 것이며 바로 그 場으로 가라는 명령이다. 이런 단계를 체념→종교경험→至聖所→召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몇 가지 例를 보기로 하자.

첫째는 모세의 경우다:

첫째 ; 모세는 애집트에서 노예적 혹사를 당하는 이스라엘 民族에 대한 사랑의 義憤을 일으킨다. 그는 이스라엘을 혹사하는 애집트 軍을 그대로 보아 넘길 수 없어서 血氣로써 그를 때려 죽여 버린다. 그것이 폭로되어 그는 도망쳐서 미디안에 이르러 아내를 얻고 子息을 두고 羊이나 치는 체념의 생활에 정착한다.

둘째 ; 그렇게 지나던 어느날 호렙山 가까이에서 양 떼를 먹이다가 神秘한 경험을 한다. 떨기 나무에 불이 붙기에 가까이 가 보았으나 불은 불어도 나무는 타지 않는 신비한 경험이다. 이것은 종교적 신비경험이다. 그러나 그것은 神秘할 뿐 거기 그 이상의 것은 없었다.

셋째 ; 그 다음에 그는 神聖한 경험을 한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의 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소리를 들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平素의 生活과 구별된 절대의 경지다. 그러므로 日常生活을 끊고 절대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경지다. 이것은 지평선상에 수직적 (vertical)인 것이 개입하는 사건의 경험이라 할 수 있겠다. 종교적 용어로 하면 至聖所의 경험이다.

넷째 ; 그러나 그것에 끊이지 않는다. 그렇게 至高한 경지, 절대의 장에 섰을 때 구체적인 지시를 듣게 된다. 그것은 결단을 촉구하는 소리, 결단의 단계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심원안병무아키브
www.simone.or.kr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았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너로 이 백성 이스라엘 子孫들을 애굽에서 해방 시키리라." 이것이 바로 모세의 召命의 체험이다.

그와 유사한 또 하나의 例를 보자, 그것은 엘리야에 관한 얘기다.

첫째 : 엘리야는 異邦神인 바알종교의 횡창에 분노하여 마침내 바알종교의 祭司 450名과 싸워 이기고 血氣에서 그들을 모두 한 칼에 죽여 버린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란 異邦에서 온 女王이 그 앙갚음을 선언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超人 같은 그의 기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고양이를 본 쥐처럼 광야로 한없이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채 기진하여 차라리 죽여 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 한다. 모세의 義勇이나 그 뒤의 체념과 같다.

둘째 : 그러한 그가 크고 강한 바람이 山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광경, 지진이 지축을 흔드는 것 같은 神秘한 경험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불붙는 떨기나무를 본 모세의 경우처럼 단순히 神秘할 뿐 거기 하나님은 없었다.

셋째 :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를 듣는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경험, 절대의 경험이라는 것은 그가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리웠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모세가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네 발의 신을 벗으라"라는 소리를 들은 것과 같다.

넷째 : 그런 경지에서 그는 비로소 한 명령을 듣는다. 그것은 아합에게 혹사당하는 이스라엘 民族을 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명령이었으며 아직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千名이 있으니 낙심말고 그들을 구하라는 것이다. 이것도 애굽으로 가라는 모세의 소명경험과 같다.

신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例를 들 수 있다. 그 중의 바울의 경우, 변화산의 얘기의 서술 내용이 그렇다.

바울은 자기 나름의 義憤에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一線에 나섰다. 그러한 그가 다메섹으로 향하는 도중 "갑짜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에게 두루 비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神秘한 경험이다. 그것은 그 지대에서 가끔 생기는 자연현상일 것이라고 뜰이한 이들이 있으나 사도행전 기자는 그런 뜻으로 쓰지 않는다. 적어도 바울에게는 신비한 사건의 경험이다. 그는 "땅에 엎드렸다." 이것은 지성소의 경험, 절대자와의 해후의 순간이

심원안병무아키브
www.simone.or.kr

다. 그것은 바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소리와 더불어 그가 누구인지를 묻는 바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였던 것이다. 그는 예수를 절대자로 만난 것이다. 그 다음에 그는 指示를 듣는다. 그 내용은 아나니아에게 고했다는 말에서 볼 수 있다. "가라! 그는 (바울)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도 내가 그에게 보여 주리라"(행 9:15—16)는 데서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그가 받은 소명의 내용이다.

또 하나의 例는 변화산상의 사건을 서술하는 마가의 편집적 배열에서 볼 수 있다. 8장에서 제자들은 예수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게 되리라는 선언을 듣는다. 베드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결사〉반대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라는 단호한 책망을 듣는다. 이 책망 속에 그의 반대가 하나의 〈血氣〉的 義憤(사람의 일만 생각하는)임을 나타낸다. 그것은 동시에 절망적인 상태다. 그 다음에 변화산상의 경험을 한다. 예수의 변모, 엘리야, 모세의 출현 등은 神秘의 경험이다. 그것은 황홀하여 그곳에 安住하기를 원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말을 들으라"는 것으로 至聖所, 절대자를 만난다. 그 예수는 그들의 소원과 상관없이 山下로 내려간다. 이것이 가야할 곳, 해야 할 일의 장소다. 거기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어린이를 해방 시켜주어야 하는 현장이다.

이상에서 체념에서 召命에까지 이르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보자.

信仰人이 가는 길

우리는 일반적으로 平面的인 日常性을 自明的인 것으로 알고 산다. 그 안에 善과 惡, 義와 不義를 본다. 그 안에서 부조리를 보면서도 못본척 사는 것이 보통이나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 더 참을 수 없어서 義憤에 떨다가 마침내 제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그것에 저항하기로 결기한다. 이러한 老年期를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無骨虫이다.

그러나 이 平面上의 현실은 事必歸正이니 正義나 善은 반드시 이긴다는 평소의 신념을 비웃는다. 결국 힘 센자가 이기고 힘 없는 자가 깔려 죽는다. 그래도 어느 누구도 제편이 돼주지 않는다. 이러한 경험을 몇차례 거

심원안병무아카브
www.simone.or.kr

듭하는 동안 平面上의 힘의 偉力을 인식한다. 여기서 아주 좌절하여 체념에로 들어간다. 적당히 살자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한 때 모세처럼 체념 속에 살거나 한 때의 엘리야 처럼, 철저히 절망하거나 아니면 힘 앞에 굴복하고 그 줄을 타는 곡예사로 전락한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地平的 현실만을 알고 수직적인 개입을 계산에 넣지 않는 자들이 빠질 수 밖에 없는 길이다. 이른바 4. 19의 사자들이 다 어디 갔나? 결국 그러한 골목에 安住한 것이다. 말하자면 저들은 必然性만을 알고 偶發的인 介入, 딴말로 하면 〈기적〉을 믿지않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해석할 수 없는 것으로 차 있다. 科學이 아무리 발달 됐다고 해도 하면 할 수록 점점 모를 것 即 神秘한 것이 더 發見된다고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自然이나 歷史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不動의 法則이 있다고 믿어 왔다. 그러나 自然科學에서도 점차 모든 것의 存立이나 계속은 必然의 연속이 아니라 偶發的인 事件의 집철이라는 것이다. 물론 科學의 발달로 우리가 神秘한 것으로 알고 그것 앞에 노예가 되는 데서 그 正體를 폭로시킴으로 그 이상 神秘하거나 또 기적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이 많다. 그러므로 어느 단계에 가서는 神學이 도달하는 세계와 우리가 말하는 神秘 또는 기적적인 것이 一致될 때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여간 신앙생활의 關門은 地平線 밖으로부터 개입해 들어와서 歷史의 方向을 전혀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介入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기적이라고도 한다. 그러한 사실을 믿게 되는데 기적의 경험은 절대로 과소 평가해서는 않된다.

이와같은 기적의 경험은 우리 삶 전체에서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 온 것을 合理的으로 받아드리는 사람도 있겠으나 기적으로 믿는 이들도 많다. 그 많은 戰爭과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긴 것은 必然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특수한 신비의 경험을 하는 이가 있다. 성서는 그런 사실을 부수히 전하며 바울같은 이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한 것을 고백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큰 타락에로 이끌어 갈 수 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 〈超自然的〉 경험을 한 자가 그것을 마치 自己의 所有가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다. 가령 어떤 一部人들이 山中에 들어가서 어떤 특수한 경험을 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 그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그가 入神한 무당처럼 自身이 어떤 神力을 지녔다고 믿고 自己의 獨力으로 내세우고

심원안병무아키브
www.simone.or.kr

그것을 팔아먹기 시작할 때 그것은 결국 사람을 속이는 악마가 된다.

사람의 손에 들어 온 것은 벌써 神의 것은 아니다. 괴테의 말처럼 사람의 손에 들어오는 것 치고 썩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것은 더욱 그러하다. 그것이 참 神秘한 경험이라면 오히려 나, 나의 存在性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 나는 限界存在라는 것을 알게 됨과 동시에 내가 絕對라고 생각하고 노예가 됐던 것에서 해방이 되어야 한다. 신비한 경험! 그것은 나의 초라함을 발견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실은 아니다. 신비한 경험 그것은 좋다. 그러나 그것은 재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그 다음 단계란 바로 絕對者, 딴 말로하면 至聖所를 만나는 일이다.

信仰이란 바로 이같은 궁극적인 것 앞에 선 삶이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극히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모세의 경우대로 하면 가까이 있다! 여기는 구별된 곳이다. 그러므로 네 日常性의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경지다. 엘리야가 두려워서 제 얼굴을 가리운 그 상태, 바울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소리를 듣는 일이다.

그것은 바로 하늘이 무너져도, 내 생명이 끊어져도 또는 한 번에 千萬金이 생기는 일이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부정하거나 침범할 수 없다는〈絕對〉 앞에 서는 일이다.

目的을 爲해서는 手段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그 이름을 자기 위거의 모면,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놈은 人間的으로도 믿을 수 없거니와 물론 크리스챤은 아니다. 〈至聖所〉는 어디까지나 복종의 대상이지 利用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지성소적 경험은 그것이 이미 自己에게 屬해 버린 것으로 알고 自己 뜻과 一致 시켜버리면 결국 我執과 獨善을 낳아 또 하나의 偶像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그 다음 단계란 絕對者의 窮極的인 뜻을 듣는 일이다. 모세나 엘리야 또는 바울이 지성소적 경험 다음에 들은 것이 바로 그 내용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 경험이 아니다. 거기에는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은 하늘, 彼岸 등을 계시하는 것도 아니며 또 존 번연이 본 환상 같은 것은 아니다. 아니! 그것은 이 歷史的 현실(地平線上)에서 지금 도탄에 빠져 신음하는 民族, 民衆의 절규와 더불어 들리는 소리다. 모세가 들은 소리는 바로 에집트의 손아귀에서 신음하는 民衆의

심원안병무아키브
www.simone.or.kr

소리를 듣고 그들의 소리에 호응하여 해방하겠다는 결의였다.

이 하나님의 뜻은 모세나 엘리야 또는 바울이 섰든 상황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저들의 內的인 소리와 유리된 것일 수 없다. 가령 모세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 소리는 그의 내적 고민과 무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自己가 버리고 온 自己民族의 수난의 환경을 계속 봤을 것이며 그 신음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눈을 가렸고 귀를 막았다. 난 못해, 그러나 그의 도피가 결단을 강요받는 그의 변명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

그러한 그에게 바로 이 신음하는 수난자 群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絕對의 소리가 명령으로 들린 것이다. 말하자면 모세의 良心의 소리와 하나님의 뜻은 들어면서 하나며 명령하고 듣는 것이면서 同時的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決斷해야 할 막다른 골목에서 예! 하고 나서는 것이 바로 召命에 應하는 行爲로 나타난다. 이럴 때, 스스로를 위한 어떤〈황홀경〉에서 〈너〉 〈이웃〉 〈눌린 자〉를 위해서 자기를 投身할 때 거기〈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東洋의 天命 또는 人乃天이라는 말과 相通하는 것이 있다. 또는 宿命(Schicksal)과 行爲(Tat)의 同時性이라는 말과도 통한다. 결국 歷史的 상황(地平的)과 하나님의 뜻(垂直的)과 決斷, 이 셋이 同時에 부합될 때 비로소 죽음도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弟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兄弟와의 관계를 외면한 하나님께 向하는 直通路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궁극성 없이 끝까지 진실한 이웃을 위하는 행위도 不可避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애였고 바로 그가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제 十字架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이다. 그 十字架를 지고 나선 것이 바로 바울이다. 그러므로 그는 스스로 神秘경험도 했고 〈종교적 환상〉도 봤으며 심지어〈方言〉도 안다고 했으나 그런 것은 이미 지나간 것으로 절대로 그런 것을 내세우거나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한 그의 결의는 오직 十字架 외에는 아무 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그몸에 그리스도와 같은 수난의 十字架를 지고 가는 것을 宿命처럼 받았다.

— 사도행전 7 : 23~ 35 —

심원안병무아키브
www.simone.or.kr